

미국 웨스트민스트 대학초청연설 “자유를 향한 아시아의 길”

※金鍾泌 공화당 의장은 1966. 10.6. 미국 미주리 주 풀톤 시에 있는 웨스트민스트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설했다. 이 연설은 영국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 대학에서 행했던 ‘철의 장막’ 연설 20주년을 맞이해 진행됐으며, 金 의장의 이 대학 연설은 동양인으로서의 최초였다.

존경하는 데이비드슨 총장, 귀빈, 신사숙녀,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유서 깊고 명성 높은 본 대학에서 저명한 연사들의 뒤를 이어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선 이 자리는 1946년 3월, 금세기의 위대한 ‘세계의 길잡이’였던 고(故) 윈스턴 처칠 경이 ‘철의 장막’과 그로 인한 냉전을 갈파(喝破)하면서 2차 대전 후 초점 잃은 세계의 이목(耳目)을 구라파에 돌리게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처칠 경은 대전(大戰) 후의 양극화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여론에 주었던 충격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예언은 적중했고, 미국과 서구제국의 공동노력은 자유 구라파의 재건을 성공케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난 20년 동안 인류는 ‘냉전(冷戰)’이라는 괴이한 형태의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국제관계는 다원화됐고, 세계사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대(當代)의 위대한 지도자의 유덕(遺德)을 길이 간직하기 위한 기념회관 정초식(定礎式)에 참집(參集)했습니다. 20년 전 처칠 경은 대서양을 건너서 구라파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곳에 왔었습니다. 나는 오늘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열전(熱戰)이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단 위에 올라 왔습니다.

나는 ‘오늘의 아시아’, ‘세계 속의 아시아’를 이야기해 보렵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아시아로부터 ‘내일의 세계’를 내다보렵니다. 이것은 곧 같은 태평양 연안국인 여러분의 미국을 통해서 내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트해의 스테틴으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트에 이르기까지 구라파를 가로지른 ‘철의 장막’도, 히말라야 산맥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으로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금강산에 이르는 아시아 남동부를 가로지른 ‘죽(竹)의 장막’도, 20년의 연륜과 풍상(風霜)에 어느 듯 낡고 녹슬기 시작한 듯이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목(耳目)은 ‘철의 장막’에서 ‘죽의 장막’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상처’가 바로 아시아이며, 그 상처에 대한 일대 수술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서구 사람들은 아시아를 ‘해가 뜨는 동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아직도 어둠의 발[簾]을 걷어 올리지 못한 채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리적인 명칭만은 아닙니다.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5분의 3이 살고 있으며, 지구 전 대륙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4배나 됩니다.

아시아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철학, 그리고 심오한 윤리와 문화가 있으면서, 분열과 침략과 욕구불만으로 가득 찬 이질성 속에서 신음해 왔습니다. 아시아는 무진장(無盡藏)의 자원이 있으면서, 빈곤과 기아(饑餓)에서 헤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과 끊임없는 비극 속에서도 ‘아시아적 인내성’에 희망을 가지고 각성한 수억의 자유민들이 스스로 내일을 찾아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참된 이해와 협조 있는 세계에서 신의를 지켜 가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된 바탕에서 살기를 기원하는 여러분들의 벗이요 반려자(伴侶者)가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의 현대사는 서구의 충격,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이러한 역사의 파도 앞에 무력(無力)했었지만, 수세기 전까지는 용맹과 찬란한 고유문명을 자랑할 만큼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정신문명에 치중한 나머지 아시아는 서구의 과학문명에 굴복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구라파 편중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아시아는 일종의 권력 진공상태를 빚어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국제공산주의자들은 1949년에는 중국대륙을 석권했고, 1950년에는 한국침략을 시도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그 방향을 돌려 인도 국경으로부터 동지나해에 이르는 ‘죽(竹)의 장막’ 선외(線外)에서 부단한 분쟁을 도발하다가 마침내 그 취약점을 뚫고 월남 침공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권력 진공상태는 이데올로기적 양극화의 소외권(疏外圈)에서 신생국가들의 민족주의적 중립노선을 자아내게 하여, 아시아 역시 자유·공산·중립이라는 세 갈래 국가군(國家群)으로 정립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물결의 소용돌이는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 단 한 곳 - 월남에서 격렬한 열전(熱戰)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곳 - 그 곳에서 자유는 이를 부정하려는 악랄하고도 무자비한 국제폭력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곳에서 자유가 패배하거나 후퇴한다면, 자유는 영영 우리 손에서 박탈될지도 모를 숙명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그것을 쟁취할 준비가 있고 의지가 있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문제는 이미 세계문제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의 당면문제는 세계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아시아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서구 열강제국이 각각 자기 국가의 이익이나 편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안이한 각도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의 부산물 중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한국을 위시한 중국, 월남, 독일 등 국토의 양단상태(兩斷狀態)들입니다. 이들 4개국 중 3개국이 아시아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문제가 아시아에 매여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주의(主義) 사상에 의하여 자유로부터 격리되고 분열된 이들 민족의 통일(統一)의 비원(悲願)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현실에서 동족 간에까지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이념적 대결과 유혈, 그리고 서구 정치체제와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간의 괴리(乖離)에서 유래하는 신생국가의 정치적 불안, 역사·문화·언어·종교·지리 등 동질성을 훨씬 능가하는 이질성, 외원(外援)을 필요로 하는 근대화(近代化)의 욕구와 민족주의적 의지 간에 야기되는 갈등 등등 아시아의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일찍이 이와 같은 난제(難題)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시아인들에 의하여 의식된 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적이고도 전체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으로 표시됐고 호전적이며 과대망상적인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公營圈)’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주종(主從)관계에 입각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것이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공감의 세계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2차 대전 후에 구성된 SEATO, ASA, ECAFE 등도 역시 서방 중심이거나, 혹은 아시아적 주체성이 없는 타율적인 것이어서 서방국가 간의 편의 또는 이해관계(利害關係) 여하로 움직여져 왔던 것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의 공동발전과 형평(衡平)한 번영을 위하여 동등한 입장, 대등하고 책임 있는 참여의 원칙에 기초를 둔 새로운 아시아적 협조체제를 절실히 희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구는 아시아인의 자각과 책임의식을 전제로 하고, 이에 입각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제(諸) 분야를 망라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사회에서 배타성을 조장하거나 보다 나은 상호 이해를 저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성(世界性)과 연관된 새로운 아시아 지역정신의 정당하고 의욕적이고 당연한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추세는 아시아적 사회구조에 뿌리박은 전통주의 배경에 비추어 평가할 때, 참으로 혁명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협조는 자각(自覺)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그것을 더욱 증진시킵니다. 아시아는 서방세계와 같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통사회가 아직도 지배적입니다.

아시아에서 필요한 영도력은 적절한 동기를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제창하는 아시아지역 협조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型)의 지도력으로써 각국 지도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보조를 맞추어 세계조류에 기여해 나아가야 합니다.

추상적인 예언이나 요행(僥倖)이 인류를 목표에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한 논리도 논리 그 자체만으로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의 길은 신념과 신의로 뚫고 희망과 용기로 전진하는 것 - 그것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나 국제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아시아적인 문명이 앞날의 세계문명의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서구문명이 갖는 세계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시아라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점들은 아시아의 문제점들이며 세계문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아시아'의 보편성은 세계적 보편성으로 통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시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아시아인들 그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류의 염원은 어느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책임도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인의 각성이 재래(齊來)한 아시아에 대한 사명의식은 그 협조의 발전적 기초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정신이 조성되고 전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매일 매일을 고민하는 아시아의 풍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킬로의 거리를 두고 각양각색의 매개체를 통하여 흔히 관념상으로만 아시아를 인식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의 아시아에 대한 문제의식의 차이는 거리와 각각 환경과 여건이 판이한 생활기반에 기인합니다.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내가 말씀 드리는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을 저울질하게 될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계(斯界)의 전문가도 아니고 깊은 권위를 갖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소신을 밝혀 보려는 것 - 그것뿐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중공(中共)을 아십니까?

서방 사람들은 중공을 '잠자는 사자' '종이호랑이' 등으로 부르고 있고, 그들의 '중화사상(中華思想)'은 스스로를 '용(龍)'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오늘의 중공을 표현하기는 부족합니다.

45억 불의 미국의 원조와 8백만의 병력을 소모한 자유중국 군(軍)이 대만(臺灣)으로 패퇴하자, 중국공산당은 중국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중공은 7억의 인구와 아시아의 중심부를 완전 점유하게 되었고, 동시에 붉은 대륙을 '죽(竹)의 장막'으로 둘러 싸버렸습니다.

최근에 핵실험을 거듭한 중공은 머지않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핵무기 사용의 목적은 자명(自明)합니다.

중국 5천년사를 볼 때 지나(支那)대륙 안에서는 끊임없는 내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대륙을 통일한 세력은 그 여세를 인근 침공으로 돌렸습니다.

1950년 중공은 백만 대군을 북한 공산군에 합세시켜서 압록강을 건너 한국 침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UN군의 출동으로 일단 저지됐습니다. 1953년 한국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이 성립됨으로써, 한국은 양단(兩斷)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토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일실(逸失)했다고 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공군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고식적(姑息的)인 유화(宥和)정책에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한국전란에서 승리했다고 믿었고, 서방측의 우유부단(優柔不斷)과 대공정책의 불일치는 중공으로 하여금 국제적 진출에 좋은 광장을 얻은 것으로 과신(過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중공의 자신(自信)과 오만(傲慢)은 1950년대를 통하여 ‘죽의 장막’을 도처에서 걷어 올리고 동남아는 물론, 중근동으로 구라파로 아프리카로, 나아가서는 쿠바를 발판 삼아 중미, 남미에까지 침투하여 선동하고 전복(顛覆) 음모를 적극화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련과 이론투쟁을 벌이는 한편, 국제분규를 제기하는 등 그 방약무인적(傍若無人的) 전통적인 ‘중화사상’은 확실히 자유진영의 우려대상이 아닐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인도의 고(故) 네루 전 수상을 비롯한 중립진영의 많은 지도자들은 접중(接踵)하여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두 개의 중국론이 대두하고, 국제연합 창설국가의 하나인 중화민국을 희생시키면서 UN에서 침략자로 낙인을 찍었던 중공을 UN에 가입시키자는 동의가 UN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견 그럴듯한 유화주의자(宥和主義者)들은 근본적인 잘못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산주의 노선이란 자유진영이 노력하고 있는 목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공이 어떠한 짓을 하는가는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세계 적화전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유화주의자나 중립주의자 혹은 협상주의자들의 ‘선의(善意)’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일방적 과신(過信)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2년 10월 중공은 중·인(中·印) 국경에서 인도를 공격함으로써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비로소 중공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야기되었던 쿠바사태를 계기로 세계도처에 침투했던 중공의 그 공작원들은 점차 그 활동이 저지당하게 되고, 낡고 썩어가는 ‘죽의 장막’ 안으로 ‘공룡(恐龍)’의 발톱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공 내륙에서는 약진운동을 비롯하여 제(諸) 국내정책이 실패를 거듭했고 공산독재체제에서 불가피한 권력투쟁이 치열해지면서 숙청의 선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대중공정책의 뒷받침을 얻은 각 신생국가들의 자유에의 각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중공으로 하여금 후퇴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세계적 기운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홍위대(紅衛隊)의 광란은 그들의 내외적 고민과 모순을 그대로 노정(露呈)한 것으로서 홍위대에 대한 민중의 반항 또한 격렬함을 볼 때, 중공이 숙명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성을 아시 아인으로서의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공은 비록 병력을 차출(差出)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전란 때 북한 괴뢰를 지원하던 수법으로 월맹(越盟)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월남 전선에 중공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전개하여 미국과 중공이 정면충돌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중공 자체의 내부 갈등은 대외 간섭의 둔화(鈍化)를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국내의 모순당착(矛盾撞着)을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내란을 억제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중공이 내포하는 피할 수 없는 제(諸) 여건과 주위의 정세는 그들이 월맹 지원을 본격화할 가능성이거나 능력도 미비하거나, 강대한 미국과 결전을 벌일만한 전의(戰意)도 아직은 없다고 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국이 월남에 파병을 결정했을 때, 모택동(毛澤東)은 북한 괴뢰에게 한국의 휴전선에서 분쟁을 일으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金日成)은 승산 없는 도발을 거부하고 소위 독립노선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공산사회에 있어서 중공의 독립적 위치를 입증하는 것이며, 오늘의 중공을 이해하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중공의 호전성을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능력에 조심합니다. 1천만의 군대동원 능력과 인해전술(人海戰術)도 알고 있습니다. 또 구라파 제국이나 중립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력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상당수의 평화주의자 혹은 유화주의자의 거론도 그 영향력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방전쟁론자(豫防戰爭論者)가 아닙니다. 월남전쟁은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평화의 ‘상처’인 월남에서 일대 외과수술을 결심하고 과감히 집도(執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병과 어깨를 나란히 지금 이 시각에도 한국, 태국, 비올빈,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자유십자군들이 공산 게릴라군과 열전(熱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에서는 월남에서 철병(撤兵)하고 손을 떼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개한 환부(患部)에서 손을 떼라고 수술의(手術醫)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중환부(重患部)를 절개해놓고 무책임하게 손을 떼다면, 그 환자는 불구자가 되거나 더 악화되어 영영 소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수술에 착수한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최선을 다하여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어 건전한 몸으로 치유시켜 놓는 것이 의사의 책임일 것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오늘의 유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절개환부(切開患部)에 붕대만 감아주고 손을 떼라는 소리이며, 협상주의자들의 그럴듯한 소리는 절개한 환부에 고약을 붙여주고 끓지만 않도록 적절히 항생제나 주사해 나가보자는 주장입니다.

나는 극단주의도 경계하거나 패배주의는 더욱 이를 배격합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는 자유·평화·번영을 향하여 수천 년을 투쟁해 왔습니다. 평화는 고식적(姑息的)인 편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쟁(政爭)의 정략적 수단에 의해서도 평화는 재래(齊來)되지 않습니다. 논리와 논쟁이 평화를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평화는 그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과 방해요인의 제거를 위한 피눈물 나는 공동노력과 무엇보다도 희생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우리의 평화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우리의 상대자들이 침략이나 파괴나 살륙으로 대답할 때에는 그들이 참으로 각성하고 항구적인 평화 건설에 협력할 때까지 그 길을 열어놓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단결된 자유진영의 ‘힘’의 행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피’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류가 수립할 수 있는 최고의 덕(德)입니다. 원자력도, 어느 주의(主義)도, 사상도 평화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평화의 원동력은 ‘인류의 뭉친 양심’인 것입니다. 인류의 생생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다한 연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 그것이 평화에의 원동력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호소에 따라 평화를 쟁취하라는 그 참 뜻을 안이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는 없습니까?

평화는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희생으로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유산인 것입니다. 평화에의 ‘길’은 피부, 인종, 국적, 전통,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당세대(當世代)를 호흡하는 누구나가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할 기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사명을 인식하고 일어서서 평화에의 원동력을 눈부시게 강화하고 발휘하기 시작한 국가가 있으니, 이는 바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신사 숙녀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한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어지러운 역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1961년까지 약 30억 불의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국은 그 전년(前年)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직접 동기를 둔 학생혁명과 과도정부에 뒤를 이어 정계의 분열과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경제적 파

탄, 부정부패의 만연, 사회기강의 문란, 군부 내의 동요, 공산분자들의 발호(跋扈) 등 극도의 혼란상을 빚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난맥상(亂脈相)은 사실 한국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나 한국에 줄기찬 원조를 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보나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비단 한국의 예(例)뿐 아니라, 자유진영에 속하는 아시아 후진국에 있어서의 공통된 지리멸렬상(支離滅裂相)은 한 때 미국 내에 대아시아 비관론까지 대두케 했던 것입니다.

1961년 5월의 군사혁명을 전환점으로 한국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2년의 군정이 끝난 1963년 10월에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에서 군사혁명을 주도했던朴正熙 대장은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그가 영도하는 민주공화당은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민정(民政)으로 내딛은 정계는 비로소 안정됐습니다.

1962년부터 금년까지朴 대통령은 조속히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 배양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1961년에 비해서 전력, 비료, 시멘트, 석유화학, 석탄, 제철 등 기간 산업을 포함한 각종 생산량은 2배 내지 10배로 비약했으며, 2백여만 명의 실업자 중 그 반 이상이 취업했습니다. 특히 식량증산에 있어서는 1970년이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도 자급자족(自給自足)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섰습니다.

절망에서 소생하여 연평균 7.6%의 고도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는 한국은 5년 전에 비하여 수출액이 6배로 늘어났으며, 그중 공산품이 62%를 차지하는 급격한 공업화를 이룩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이면 농민들과 같이 모를 심으며 국민들과 더불어 땀을 흘리는 한국의 영도자朴 대통령은 명년부터 1971년에 이르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기까지에는 명실공히 근대화를 이룩하고 경제적 도약을 함으로써, 현 국민소득을 현재의 3배가 되는 3백 불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욕과 꿈을 한국 국민에게 안겨주며 매일 매일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착실한 기반 위에서朴 대통령은 작년 8월 아시아 현안문제의 하나였던 한일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를 이룩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간의 14년 회담이 성공하는 동시에 3백여 년간의 민족적 감정으로 대립했던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아시아에의 공헌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1965년 자유월남 정부의 요청을 수락하고, 미국의 뒤를 이어 금년 10월까지 4만여 명의 한국군을 파병하여 자유월남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의 파월(派越)에 제(際)하여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이 겪은 전란(戰亂)과 국제협력의 체험에 따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평가와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군의 일부를 파견하여 자유월남을 지원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옳은 길이라 단정하고 이를 결정했다. 월남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결코 전쟁을 위한 공격적 참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방어적 참여인 것이며, 우리가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계속이 아니라 평화의 조속한 회복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결속된 자유세계의 힘 앞에는 후퇴하고야 말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자유민들은 간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국의 기본태도를 천명했습니다.

나는 이러한朴 대통령에게서 아시아의 지도자적 신념을, 그리고 신의를 발견하는 것이며, 이 신념과 신의야말로 새로운 국제외교상의 기초가 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한국은 1950년에 자유우방들의 피로써 제공했던 도움을 고마움과 더불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국가적 이익 앞에는 약속이나 신의(信義)가 창이(敞履)처럼 버러지기 쉬운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서 지켜지는 국제적 의리는 그러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아시아적(的)인 것입니다만, 아시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속에서 이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가 지니는 명제에 따라 아시아의 해결을 위해 지금 어느 때보다 과감하며, 아시아인 사이에 공감의 세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도 해결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오랜 분쟁도 일단락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의 극적인 몰락을 보았습니다.

여기 또 하나 아시아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아시아 스스로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시아의 협력기구 ASPAC과 APU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국가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유사 이래 처음 보는 아시아인의 광장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각료급 정부대표가 모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회(ASPAC)는 성공적인 첫 모임을 갖고, 월남의 공산 침략 등 아시아의 당면문제를 토의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역기구인 아시아 국제의원연맹(APU) 역시 “미국을 비롯한 월남파병 제국(諸國)의 적절하고 결단성 있는 제(諸) 조치를 높이 찬양하고, 중공의 UN가입을 반대하며 월남지원 협조기구를 설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아시아의 나아갈 길’을 확인하고, 아시아의 단결과 협동된 노력을 다 했습니다.

10년 전 공산군과의 대결에서 고귀한 희생을 치른 한국은 오늘날 다시 월남에서 새로운 사명감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앞장서서 아시아를 ‘평화의 밭줄’로 굳게 결속해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밭줄’은 아시아의 자유국가를 한 나라 한 나라를 굳게 연결하여 위대한 아시아를 형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밭줄’은 앞으로 아직 평화와 자유를 등지고 사는 여타의 아시아지역에까지 연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운동을 한국은 이미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궁극적인 평화란 공산진영과의 유화(宥和)에 의한 공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진영의 힘을 결속하여 평화와 자유화운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해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월남의 호志明(胡志明)과 중공의 모택동(毛澤東)이 미국 유화론자(宥和論者)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후퇴하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얼마나 기뻐 날뛰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적(敵)으로 하여금 미국의 역량과 결의와 능력을 잘못 인식시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자유월남에서 실시된 총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월남(對越南) 정책면에서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자유국가의 대공 정책면에서도 크게 고무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월남은 일찍이 시련을 극복한 한국의 선례(先例)를 믿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월남의 장래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유화(宥和) 아닌 ‘평화의 밭줄’로 묶는 자유 아시아권 형성만이 공산침략자들의 음흉한 기도(企圖)를 사전에 분쇄하는 첩경임을 강조합니다.

미국이 아시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세계사에 비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미국의 아시아에의 관심은 구라파에의 그것에 비해 훨씬 늦고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오늘날 아시아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의 운명과 직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통찰의 결핍으로 인하여 아시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하지 못했던 일을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시아는 결정적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대기(大機)는 불재래(不在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아시아 평화에의 큰 기회를 일탈(逸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일의 사가(史家)들이 “아시아에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던들...” 하고 오늘의 정세를 회고하며 개탄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1950년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가 아시아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아시아권 형성의 막바지 고비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對)아시아 협력은 1950년대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더욱 면밀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새 시대를 맞이하려는 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미국 문화형(文化型)을 통해서 보는 종래의 원조방식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고 그들의 의도와 조절되도록 충분히 고려된 협력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호간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조절된 산물의 하나가 바로 최근의 월남 총선거라고 봅니다. 사실 자유월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오늘날 아시아 지역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확고한 대월(對越) 정책은 아시아 억만인(億萬人)의 신뢰와 아시아의 의욕을 환기시키는 원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미국의 대월(對越)정책은 아시아 제국과 긴밀한 상호 협력 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발전이 자유우방들의 동등한 발판과 공동책임 하의 참여라는 원칙에 입각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면, 미국의 대아(對亞) 정책은 일국(一國) 중심세력에 치중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각국을 동일시하는 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자세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시아 공동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는 좌절될 우려가 큰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신생국들의 발전이 근대화를 지향하는 추진세력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적 지도력만을 요구하던 단계를 벗어나 바야흐로 국민들의 의욕을 바탕으로 한 조직을 가진 정치지도자, 그리고 정치세력을 미국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의 대아(對亞) 정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무거운 책임에 못지않게 아시아지역 내에 있어서의 균형된 조정과 국가 간의 협력체제를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지금 서서히 진행되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발전의 시간상의 단축은 아시아 민족들의 공동노력의 열성과 각 지도자들의 책임에 달려 있음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단결된 자유아시아시대의 출발신호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회와 같은 지역협력 기구의 성공은 반드시 아시아의 인민과 정부로 하여금 보다 고차적(高次的)인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아시아 국제의원연맹이 활동을 강화하여 아시아의 전 국회의원을 총망라함으로써 명실 공히 ‘아시아의 의회(議會)’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구라파 제국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날로 깊어감을 크게 기뻐하고 주시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행된 양차(兩次) 대전을 통하여 사람들은 미국이 ‘인류 최후의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처럼 남의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 최후의 보루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희망의 마지막 보루’라는 호칭은 남을 위해 노력한 미국에게 준 이름입니다. 그것을 결코 배부른 은사(隱士)로 만족하는 미국에게 주어진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존슨 대통령은, “아시아는 지금 독립과 질서,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위한 인간투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대가 되고 있다. 만약 아시아에 영원한 평화가 온다면 모든 인간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만약 아시아의 평화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미국의 업적은 어디서나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의 진실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미국이 ‘인류 최후의 희망’이기보다는 먼저 자유민들과 더불어 이상(理想)의 실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고 공헌하는 것이 ‘스스로의 과제’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강력한 ‘평화의 밭줄’에 의하여 결속된 자유아시아권이 다시 서구의 자유권과 튼튼히 묶여질 때 비로소 세계평화는 확고한 기반을 잡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자유진영은 녹슨 ‘철의 장막’도 낡은 ‘죽의 장막’도 걷어치울 수 있고, 공산 측과 타협할 수도 있고, 그때야말로 유화정책도 실효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국이나 월남과 같이 분단된 국가들이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협력체제가 성취될 때에는 ‘세계의 부담’으로 여겨지던 아시아가 ‘세계에 공헌하는 영광된 아시아’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물질문명에 의하여 빛을 잃었던 아시아의 정신문화가 다시 그 빛을 찾아 세계의 새로운 문화권 형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오랜 어둠에서 뛰쳐나온 아시아는 이제 세계의 무대 앞에 밝은 등불을 내들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의지와 용기와 정열이 우리 아시아인의 가슴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정녕 아시아는 매혹적이고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세계의 반려자(伴侶者)가 될 것입니다.

빛나는 내일로 향한 ‘아시아의 길’이 아시아 자유민 스스로의 자각과 확고한 미국의 대(對)아시아정책에 힘입어 탄탄대지(坦坦大地) 위에 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를 바로 여러분의 벗 대한민국이 아시아 자유국가들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찬란히 비쳐주는 태양을 향하여..., 그리고 평화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1966. 10.6.)